

2024. 4. 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02-2133-7645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02-2133-7651
누리집	news.seoul.go.kr/env/archives/256831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산행 시 네모난 미끼약 만지지 마세요! 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살포

- 5월 중순까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살포 30일 후 남아있는 예방약은 수거
- 주요 산·하천 등 살포... 사람 체취 묻으면 먹지 않을 수 있어 만지지 않도록 유의
- 반려동물에게 안전하지만 병원 백신 맞아야 효과... 산책 시 야생동물 접촉 말아야

-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가 4~5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백신이 포함된 약을 살포한다. 약 2~3cm '네모난 모양'으로, 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아 살포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서울시는 4.1.(월)~5.15.(수) 너구리 등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주요 산·하천 주변 등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

○ 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 시는 주요 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 등)과 하천(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 등)에 약을 뿌리며,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광견병이 시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될 예정이다.

□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의 체취가 약에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만진 부위 등에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예)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안내판

□ 미끼 예방약은 가정에서 돌보는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 있지만, 반려동물이 정확한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후 폐사하기도 한다.

-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1.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1부.
2.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Q&A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붉은색 선을 따라 살포)



(미끼백신 살포 위치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미끼 예방약 살포모습(예시)



|Q1| 광견병이란?

- ◆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교상(물린 상처)을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서는 “공수병” 이라고 합니다.
- ◆ 1주~4개월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공격성 증가, 침을 흘리는 등의 신경증상을 3~7일 나타내다 대부분 10일 내 사망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증상이 비슷)
- ◆ 감염 동물은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하며, 사람의 경우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나 야생동물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즉시 비눗물로 씻어 낸 후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Q2| 서울시에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게 된 배경은?

- ◆ 2006년 서울 은평구의 야생 너구리에서 광견병이 발생하여 2006년부터 한강 이북 지역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경기 남부지역(수원, 화성)에 광견병이 발생에 따라 2013년부터는 서울 한강 이남지역까지 확대하여 매년 봄·가을 서울 외곽지역에 차단띠 형태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 ◆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에서 광견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반려동물이 미끼 예방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 ◆ 해당 미끼 예방약은 개를 포함한 60종 이상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매우 안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 ◆ 다만,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너구리)의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Q4| 만약 미끼 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미끼 예방약을 만지면 사람의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으며, 간혹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만지지 말고 놔두어야 합니다.
- ◆ 미끼 예방약 살포위치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이 부착되며, 살포일로부터 30일 후 수거될 예정입니다.